

【연구논문】

억압된 인종 공포: 미국문화와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전쟁

강우성
(한성대학교 영어영문학과)

I.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미국학자들 사이에서 한국전쟁의 비공식적 명칭은 ‘잊혀진 전쟁’(forgotten war)이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의 한반도에서 벌어진, 제 1차 세계대전 다음으로 많고 베트남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를 낸 끔찍한 전쟁을 일컫는 이름치고는 초라하다 못해 비극적이다. 이 명칭이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망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면, 잊혀진 사건으로 기억되는 한국전쟁은 그 최대 피해자인 한반도 거주민들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미국인들의 역사인식에 존재하는 심각한 자기망각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한국전쟁은,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사태였기에 기억의 대상조차 되길 거부하는 ‘홀로코스트’(Holocaust)의 체험도 아니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컴퓨터 게임처럼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 사건으로 체험된 ‘걸프전’(Gulf War)도 아니면서 미국인들에게는 망각과 기억의 회로 속에서 독립된 역사로 간직되길 거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문화 속에서 잊혀진 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은, 베트남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체험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며 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지와 관련된 집단적·문화적 물음을 제기한다. 기억되는 역사가 아니라면, 한국전쟁은 미국인들에게 어떤 문화적 이미지로 존재하는가? 미국문화에서 한국전쟁이 기억 혹은 망각되는 방식은 미

국사회의 뿌리 깊은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제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쟁이 미국의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논의되는 방식과 비교해보아도 한국전쟁의 특수성은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너무나 많고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하며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미국인들의 관점 역시 다채로운 두 전쟁의 서사들에 비해, 한국전쟁은 대체로 미국인들이 거론하길 당혹스러워 하는 사건이다. 나찌즘을 막고 완전한 ‘승리’를 이룬 2차 세계대전과 명백한 ‘패배’로 기록된 베트남전쟁이 미국 사회의 행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미국인들의 자기인식에 도전적인 과제를 남겼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완전한 ‘패배’도 확실한 ‘승리’도 아닌 한국전쟁이야말로 미국의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의 전개과정에 더 중대한 계기였다는 진단도 존재한다(Blair ix, Foot 4).

반면, 왜 미국인들이 규모나 참상의 정도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한국전쟁보다 집단적·문화적으로 ‘승리한’ 2차 세계대전과 ‘패배한’ 베트남전쟁에 더 강박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한국전쟁이 어떻게 잊혀지고 어떤 이미지로 기억되는지 추적함으로써 찾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40년대와 50년대에 전쟁하면 2차 세계대전이었다. 1960년대가 끝날 무렵엔 전쟁은 곧 베트남전쟁을 뜻했다”(Hertzberg 1)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면, 그런 인식에 의해 지워진 한국전쟁의 흔적을 살펴보는 일은 전쟁에 관련된 미국인의 자기인식이 억압하고자 하는 집단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미국문화에서 한국전쟁이 하나의 독특한 이미지이자 이데올로기로 재현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그러한 재현의 논리가 지닌 문화적 함의를 짚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사회에서 한국전쟁이 어떻게 표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들—예컨대 <도고리 강의 다리>(The Bridges at Toko-Ri, 1954)나 <만주출신 후보자>(The Manchurian Candidate, 1962)—이 보여주는 한국전쟁의 이미지를 분석하며, 끝으로 한국전쟁을 망각하는 문화적 논리가 냉전 시대를 관통하여 현재에도 계속되는 ‘미국 이데올로

기'의 중요한 구성요인임을 밝혀보고자 한다.¹⁾

II. 무엇이 어떻게 기억되고 망각되는가?

한국전쟁이 미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잊혀진' 전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완전히 망각되었다기보다는 제대로 기억된 적이 없었던 쪽에 가깝고, 어쩌면 망각된, 혹은 왜곡된 형태로 기억되어 왔을 가능성이 더 많다. 가령 미국 역사 교과서 12종을 분석한 한 논문에 따르면, 평균 874쪽에 이르는 이들 교과서에서 한국전쟁에 관한 서술은 고작 평균 3페이지였고 그 대부분도 삽화나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이들 교과서는 모두 한국전쟁과 한국문화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공통점을 지닌다(Fleming and Kaufman 71~72). 어느 역사학자는, “베트남 전쟁을 다룬 훌륭한 종합교재를 추천하기는 아주 쉬운데 왜 한국전쟁을 다룬 경우는 그렇지 못한가?”라고 개탄하기도 했다(Schaller 295). 반면 대중들에게 각인된 한국전쟁은 “참기 힘든 험한 날씨를 배경으로 한 남루한 피난민들과 황폐한 땅”과 같은 이미지들과 곧바로 연결되었고 한국전쟁에 관한 이야기들 역시 “한국적 요소들을 거의 포함하지 못한 채” 서술되기 일췌였다(Oh 158). 더구나 실제 참전용사들도 한국전쟁을 회고하거나 기록할 때 자기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별로 보여주지 않는다. 이들의 회고록은 담담한 후일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들의 주된 정서 역시 단기간의 작전 수행을 마친 정도의 상념밖에 없다. 회고록의 편집자도 지적하듯이, 흥미로운 예외라면 당시 중공군에게 장기간 전쟁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의 얘기

1)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많은 작품들 중 이 두 영화를 고른 이유는, 첫째 두 영화가 할리우드 전쟁영화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냈으며, 둘째 전쟁과 미국사회 내부의 이념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며, 셋째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주요 영화사들에 의해 대규모로 제작·배급되었으며, 넷째 한국전쟁 영화로는 드물게 대중적 성공을 거둔 영화들이라는 점이다.

정도이고 이 사람들도 추위와 악조건 속에서 악몽을 견디고 나왔다는 정도이지 '자유 수호'라는 막연한 구호 외에는 전쟁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찾아보기 힘들다(Granfield 117~118).

한국전쟁 회고록의 독자들이 전쟁을 다룬 서사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긴박함의 결핍은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서사나 영화들이 보여주는 '영웅담'이 한국전쟁의 경우에는 결핍되어 있다는 특이한 사실을 말해준다. 가령 적군—북한군이나 중공군—과의 대면이랄지 개별 전투에서 벌어진 무용담과 얽힌 얘기가 많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언급보다도 대부분의 회고록은 3년간에 걸친 실제 전투에서 느낀 체험보다는 전쟁을 전후 한 후일담들로 채워져 있다. 한국전쟁의 회고록이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쟁의 경험과 의미를 공유할 독자가 미국문화에 부재하다는 것이다.²⁾ 더구나 한국전쟁을 “러시아 공산주의 독재가 세계를 야금야금 수중에 넣으려는 침략의 일환”(Seed 15 재인용)으로 선전한 전쟁 기획가들의 입장과 달리 실제 참전용사들이 남긴 기록에는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 세계를 수호한다는 이데올로기적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도 원치 않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의 껌연쩍음 같은 실존적인 상념만이 지배적이다.

그날은 내가 길가를 따라 늘어선 눈구덩이에 몸을 웅크린 중공군 병사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아무런 상념도 없이 총을 쏘았던 날이었다. 그날을 잊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그날 밤엔 별 하나 없었는데, 우리는 칙을 눈 속에 던져두고 나뭇가지로 덮은 다음 선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듣고 있지는 않았다.

It was the day I fired my weapon without thinking and making eye contact with the Chinese soldier cowering in a snow cave along the trail. I'd like to forget that day, but I can't. It was a starless night when we dumped Chic in the snow, covered him with branches, and listened to the words of the skipper but didn't hear them (Granfield 81).

2) 흥미롭게도 이 점은 한국전을 다룬 미국소설들이 미군 병사의 영웅적인 시련을 다루고 한국전을 보편적인 인간의 사건으로 취급했다는 사실과 비교된다. 정연선 189 참조.

한국전쟁 서사의 특징은 전쟁의 의미가 속속들이 담긴 무용담이 아님은 물론 '중공군'과 '눈'으로 상징되는 '1.4 후퇴'의 이미지들이 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한국전 참전이 2차 세계 대전의 경우와는 달리 사전에 준비된 상태의 개입이 아니었기 때문이지만, 이는 공산주의에 맞선 '자유의 수호'로 한국전쟁을 규정하는 시각이 참전용사들의 실감과는 매우 동떨어진 논리일 뿐만 아니라 소위 냉전체제의 고착화 이후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적 이념임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어쨌든 정치적 차원의 전쟁 규정과 일반 대중들의 전쟁 체험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한국전쟁을 잊혀진 이념전쟁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가 1963년을 기점으로 할리우드에서 자취를 감추고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나 공론화가 베트남전쟁을 겪고 난 1970년대 이후에야 본격화되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Worland 374). 한국전쟁은 승리도 아니고 패배도 아닌 형태로 중단된 채 베트남전쟁을 겪은 이후 동서체제가 공고화된 상황에서 냉전의 서막을 올린 전쟁으로 소급 규정 되었지만, 전쟁의 와중에는 어떠한 대의를 내건 싸움인지에 관해 대체로 불분명했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한 평자의 지적대로, “제 2차 세계 대전과 베트남전쟁이라는 고래들 사이에 끼인 채 한국전쟁은 미국인의 의식에 새우에 불과한 정도로 축소되었다”(Millet 924). 따라서 한국전쟁의 역사적 중요성은 “한국에서 싸운 사람들을 포함 미국 대중의 기억과는 다른 지점에서 찾아야 마땅”(같은 곳)하고 베트남전쟁이나 제 2차 세계대전과 분리시켜 볼 필요가 있지만, 미국문화에 끼친 한국전쟁의 의미는 미국 문화 속의 집단적인 기억상실이라는 현상과 떼어 내서 고찰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는 한국전쟁을 특정한 방식으로 기억하거나 망각하기를 바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논리—미국문화에 내재한 논리—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요구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문화적 표현들이 보여주는 독특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전쟁 직후 50년대에 나온 영

화들 중 주로 2차 대전에 관련된 영웅적 미국인의 모습을 형상화하려는 연장선상에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삼은 전쟁영화들은 대체로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 반면, <도고리 강의 다리>나 <만주출신 후보자>의 경우처럼 참혹한 전투를 통해 미국인의 가치를 드높이기보다 전쟁의 의미에 대해 반추하고 회의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것이 미국적 '가족'의 가치에 대한 위협임을 상기시키는 영화들이 대중적 성공을 이루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의 대중문화에서는 한국전쟁이 독립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기보다 베트남전쟁의 기억과 체험으로 채색되어 재등장한다. 다른 참전용사들과 달리 유독 미국 내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한국전쟁의 베트남화(Vietnamization)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한국전쟁을 비롯한 전쟁 일반에 대한 미국의 문화적 냉소주의를 혐오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베트남전쟁은 반전운동의 성취와 맞물려 참전용사들과 일반 대중간의 전쟁에 대한 정서를 확연히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참전용사들이 '잊혀진' 한국전쟁의 대의명분을 냉전 이데올로기에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일반 대중들은 베트남전쟁을 비롯하여 미국이 벌이는 전쟁 일반에 대해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일반 대중들에게 2차 대전의 영웅적 승리나 베트남 전쟁의 값비싼 패배가 주는 교훈의 어느 쪽에도 대입하기 힘든, 유쾌하지 못한 전쟁의 하나였던 한국전쟁은 참전용사들에게는 반성의 대상이 되기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로 존재한다.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삼아 베트남전쟁을 비롯한 전쟁 일반을 회화화하고 패러디한 영화 <야전이동병원>(M*A*S*H 1970)을 '쓰레기'라고 칭하며, "그 전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웃음거리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비난한 한 참전용사의 소감이 이러한 역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Kim 38). 참전용사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영화 <야전이동병원>은 TV 시리즈로 재구성되어 20여년에 걸쳐 오랜 인기를 누렸는데, 이는 베트남전쟁 이후 풍자와 패러디의 형태로 전쟁 일반에 대해 비판적인 1970년대 미국 대중 정서의 한 측면을 반영하는 동시에 베트남전쟁을 포함한 전쟁의 진상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왜

곡된 관념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³⁾ 따라서 이런 미국문화의 현실에서 한국전쟁이 부차화되고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무의미한 전쟁으로 치부된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Soares 9). 참전용사들의 거센 반발은 미국의 대중들에게 전쟁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리하여 베트남전쟁의 경험에 의해 포위당하고 대중들에게 외면당한 채 한국전쟁은 ‘냉전의 수사’에 편리하게 동원될 뿐이었다.

III. 포로로 잡힌 한국전쟁

정책결정권자들에 의해 승리한 2차 대전과 패배한 베트남전쟁 사이에서 ‘경찰권발동’(police action)의 일환으로 기록된 ‘제한’ 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은 분명 아시아 지역에 세력권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었고, 미국인들에게는 의도한 결과를 얻어 내지 못한 ‘쓰러린 작은 전쟁’(sour little war)이기도 했다.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은 참전용사들의 반응 역시 대동소이하다.

한국에서의 전쟁은 그리 떠들썩한 일이 아니었다. 경찰권발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전쟁은 불가피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다. 아무런 전쟁의 찬가도 미국의 영혼을 깨우지 못했고, 그 전쟁이 50년 전에 끝났을 때는 호느낌만이 있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고 귀 기울인 이도 없었지만 거의 3백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전쟁의 교묘한 공포 속에서 사라져갔고, 나는 결코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영혼에 입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The war in Korea wasn't a very noisy affair. Labeled a "police action," it was regarded as necessary but not glamorous. No battle hymns stirred America's soul, and when the conflict ended 50 years ago, it was with a whimper. But while no one was looking and few were listening, almost 3

3) 이 작품이 한국전쟁의 실상과 무관한 전쟁 일반에 대한 “희비극”에 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정숙 211-212 참조.

million people perished in its quiet horror, and I came home with a wound on my soul that will never heal (Martinez 1).

베트남전쟁 이전의 한국전쟁이 대중적 관심조차 없이 벌어진 고립된 전쟁이었다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떠들썩하고 문제적이었던 베트남전쟁 이후에는 동서 간에 고착된 냉전의 시발점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닌 듯하다. 요컨대 베트남전쟁의 기억이 미국인들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을 억압 불가능한 문화적 외상(trauma)으로 남았다면 한국전쟁은 미국인의 안락한 삶을 한때 불편하게 만들었던 쓰라린 기억으로서 이제 애도(mourning)의 대상일 뿐이다. 한국전쟁의 ‘망각’에는 베트남전쟁의 ‘집착’이 덧 씌어져 있다.

이렇게 잊혀지고 초라해진 한국전쟁의 위상이 새로운 함의를 띠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베트남전쟁 이후 본격화된 동서 냉전체제(Cold War regime)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체제의 고착화로 인해 한국전쟁은 전 세계적 좌우대립의 출발점으로 베트남전쟁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냉전 이데올로기의 모판 구실을 했다. 냉전시대 동서대결의 주요 무기 중 하나가 수사(修辭) 담론이었듯이, 한국전쟁은 역사적인 전쟁으로 자리매김 되기 이전에 언어와 이미지 및 상징 차원에서 냉전을 표상하는데 동원되었다. 다시 말해 냉전시대 한국전쟁은 그 자체로서 베트남전쟁에 버금가는 교훈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자유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적 가치와 미국적 이상에 반하는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독재의 위협성과 연결되었다.

이 점은 1960대 후반 이후 한국전쟁과 연관된 미국인들의 집단적 기억이 ‘전쟁포로’(POW: Prisoners of War)의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극명하게 확인된다. 보수적 역사가들이 주장하듯이, 1949년에서 1989년에 걸친 냉전체제는 어떤 의미에서 장기간에 걸쳐 전쟁이 철저히 억제된 유례없는 ‘평화의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 대중들에게 각인된 냉전의 이미지는 상대진영과의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 전쟁이 아

나라 <007시리즈>의 첩보전이 상징하듯 각 진영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념적 심리적 대립의 문제로 표출된다. 냉전체제의 정립은 한국전쟁을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전체주의 대 개인의 자유,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가치 간의 대립을 평가의 궁극적 잣대로 만들었으며, '전쟁포로'의 귀환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어 동양적인 것에 대한 서구인들의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불순한 계기로 인식되었다. 한국전쟁은 미국적 가치와 이분법적 대립관계에 있는 모든 사악한 세력들이 연합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도전한 사건으로 낙인찍혔고, 이른바 '세뇌'(brainwashing)에 대한 상징적인 공포를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전화시킨 기제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 점은 또한 한국전쟁을 다룬 영화로서는 드물게 대중적인 호응을 받았던 <도고리 강의 다리>나 <만주출신 후보자> 같은 영화들에 나타나는 소위 '가족 멜로드라마'의 서사구조와 여성에 포위된 남성성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1950~60년대 한국전쟁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들의 특징을 요약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들 영화들은 한국의 역사나 아시아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 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35편의 영화들 대부분은 한국전쟁의 실상과는 무관하게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삼아 공산주의라는 '악'에 대항하는 미국의 이념적 전쟁을 형상화했다(May 115). 또한 한국전쟁을 다룬 제임스 미치너(James Michener)의 원작을 영화로 만든 <도고리 강의 다리>가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영화의 주요 배경은 한반도가 아닌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와 도쿄로 설정되며 주인공 브루베이커(Harry Brubaker)가 겪는 갈등은 아름다운 아내와의 안락한 가정을 포기하는 대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여 적진 깊숙이 들어가 다리를 폭파해야 하는 의미 없는 임무에 대한 회의에서 나온다. 회의하는 주인공에게 폭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태런트 제독(Admiral Tarrant)조차 전쟁의 의미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지 못한다. 2차 대전 참전용사인 브루베이커가 한국전쟁에 대해 느끼는 회의는 공산주의를 퇴치한다는 공식적인 미국정부의 선전과 전쟁 일반에 대한 당시 미국인들의 반감어린 정

서 간에 놓여있는 거리감을 적절하게 상기시켜준다. 더구나 브루베이커를 연기한 윌리엄 홀든(William Holden)이 2차 대전을 다룬 영화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적 미국인으로 자주 등장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괴리가 더 실감나게 다가온다. 2차 대전의 영웅이 아무도 대의를 확신하지 못하는 ‘잊혀진’ 전쟁에서 회의에 가득 찬 인물로 장렬하게 전사하는 과정은 영웅적 남성성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전쟁영화의 새로운 서사를 보여준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죽음에 비견되는 주인공의 비극적 최후와는 달리 전쟁은 결국 승리로 기록되지만, 영화가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희생조차 미국사회에서 궁극적으로는 잊혀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도고리 강의 다리>가 보여주는 성취는 바로 소위 ‘승리문화’(victory culture)의 이데올로기들이 지배하는 할리우드 전쟁영화의 문법에서 의미 있는 예외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부각되는 영화들을 관객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거기에 회의적인 <도고리 강의 다리> 같은 영화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이기도 하다.

<도고리 강의 다리>가 공산주의와의 대결이라는 한국전쟁의 이념적 대의가 실제 전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에 큰 의미를 띠지 못한다는 점을 그려냈다면, <만주출신 후보자>는 미국 내부에서 진행되는 냉전의 심리적 양상을 추적하고 있다. 미국사회 내부에서 관객들이 느끼는 냉전의 심리적 양상은 크게 죄의식과 공포로 요약할 수 있다(May 126). <만주출신 후보자>가 대중적 성공을 거둔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미국사회의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는 인종적으로 열등한 아시아인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무장할 때 보여줄 수 있는 파괴력에 대한 대중적 공포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이들에 의해 세뇌된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미국사회 내부의 잘못된 경향들에 대한 집단적 죄의식을 조장하는 것이다. <만주출신 후보자>는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가 연기한 주인공 레이먼드 쇼(Raymond Shaw)가 상기시키는 세뇌의 공포가 계부(繼父)이자 상원의원인 존 아이슬린(John Iselin)—제임스 그레고리(James Gregory)의 연기—및 주인공의 어머니—안젤라 랜스베리(Angela

Lansbury)의 연기로 대변되는 미국사회 최고위층에까지 파고들었음을 보여주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극대화한다. 영화의 서사는 세뇌를 통해 미국인의 정신을 조종하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그러한 세뇌에 허무하게 굴복하여 자신들을 향한 무기로 돌변하는 나약한 미국 남성성에 대한 대중의 혐오도 그려내고 있다. 요컨대 이 영화는 한국전쟁이 미국적인 가치 및 영웅적인 남성성에 초래한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그 원인을 냉전에 감염된 잘못된 모성주의(momism)에서 찾고, 이를 미국사회 내부에 스며있는 비미국적인 존재들에 대한 공포와 연결시키는 다층적 서사구조를 지닌다.

IV. 인종혐오 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전쟁

사실 인식 불가능한 경험을 불가사의한 ‘타자’(the Other)로 만들어 서구적 개인(individual)의 가치에 대립시키는 과정은 딱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서구문화에 깊은 내력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전쟁이 미국문화에 의해 타자화되는 과정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한국전쟁이 주로 전쟁포로의 세뇌에 대한 공포와 연결됨으로써, 동서냉전 체제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 공산주의와의 사이에 성립된 것이지만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적인 것에 대립된 체제였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미국의 한 보수적 논객은, “한국전쟁이 독특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수많은 전쟁포로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포섭된 뒤 미국으로 돌아와 5~6년 후에 적국의 스파이로 활동하도록 교육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Seed 17). 귀환 후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전쟁포로들이 억류기간 동안 모종의 심리적·정신적 세뇌를 받았으리라는 미국인들의 근거 없는 믿음은 자유롭고 선량한 개인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아시아적 공산주의의 힘에 대한 집단적 두려움을 표시한다.⁴⁾ 비슷한 맥락에서 1990년에 나온 James Hickey의 『눈

속의 국화: 한국전쟁 소설들』 *Chrysanthemum in the Snow: The Novels of the Korean War*)의 미군통역관 최(Choi)에 대한 작가의 묘사는 이러한 공포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그가 이해하기로 그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무기로 무장한 채 그들의 신보다도 더 오래된 한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온 것이었다. 이런 생각은 화를 돋우기보다 흥미를 불러 일으켰지만,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동포들을 미개한 인간 이하의 존재들로 취급하는 것에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다. 통구스어족의 한국인들은 활자와 음성 문자체계를 발명했던 민족이고, 현수교와 별자리의 움직임을 찾아낼 수 있는 천문 기구들과 컴퍼스 및 철갑선을 고안해냈던 사람들이다. 미개인들이라고? 웃기는 일이다.

As he understood them, they had come to Korea armored in their own superiority to correct the political situation of a nation older than their own god. This amused, rather than angered, although it did anger that so many of the Americans regarded him and his countrymen as barbaric subhumans. The Tungusic Koreans, a people who had invented movable type and the phonetic alphabet, who had devised the suspension bridge and astronomical instruments to fix the stars in their courses, and the compass and the armored ship. Barbarians? Ha (Hickey 157).

이 대목은 통역관 최가 미국인 병사들이 한국인들—소위 ‘국’(gook)—을 비하하며 늘어놓는 얘기를 듣고 혼자 분을 삼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에 가득 차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바로잡으려 하는 행위가 매우 못마땅하다. 이 대목의 중요성은 한국인들이 활자를 만들고, 천문 측정 기구를 비롯해 측우기, 컴퍼스, 거북선 등을 만드는 등 미국인 못지않은 문명인이었다는 사실이 미국작가에 의해서도 환기되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미국인의 통역을 도와주는 등 미국에 매우 우호적으로 보이는 인물조차 잠재적인 배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4) 한국전쟁기 한국인 및 중국인 포로에 대한 남한 및 유엔군측 정책 및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 역시 고도의 ‘심리전’의 성격을 띠었음을 나타내주는 연구로는 김승태 66-67.

있음을 작가가 형상화했다는 데 있다. 작가는 아시아인에게는 누구나 백인에 적대적인 내면이 존재하고 한 순간에 적으로 돌변한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자유로운 개인’은 아시아적 공산주의라는 파악불가능한 타자에 의해 언제라도 세뇌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인에 대한 증오를 감춘 채 겉으로 매우 협조적인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는 2차 대전의 형상화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다루는 경우에는 거듭 발견된다.

둘째, 베트남전쟁의 쓰라린 패배경험과 맞물려 한국전쟁에서 귀환한 전쟁포로의 세뇌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미국인의 집단적·역사적 인종차별의 히스테리를 극명하게 부각시켰다. 아시아적 공산주의의 마력에 대한 공포는 푸 만추 박사(Dr. Fu Manchu)⁵⁾와 같은 인물을 창조해 내는데 이르렀고, 19세기 중엽 최초의 흑인봉기인 아이티혁명의 성공으로 인해 조성되었던 흑인에 대한 집단적 인종공포에 버금가는 이른바 적색공포(Red Scare)와 ‘황색재난’(Yellow Peril)의 이데올로기를 양산했다. 예컨대 1959년에 나온 리처드 컨던(Richard Condon)의 원작소설을 1962년 프랑켄하이머(John Frankenheimer) 감독이 영화화한 <만주출신 후보자>는 아시아인에 대한 미국인의 인종적 편견이 어떻게 한국전쟁의 이미지와 연결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레이먼드 쇼의 세뇌를 담당했던 중국인 옌 로(Yen Lo)가 그 과정을 러시아와 북한의 동지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은 단번에 사악한 푸 만추 박사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미국인들의 관념에 내포된 무의식적 공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5) Sax Rohmer가 자신의 연작소설의 중심인물로 만들어낸 캐릭터로서 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충실한 복두각시로 개조하는 아시아적 악의 화신이다. 비록 나중에는 미국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수호자로 묘사되지만, 푸 만추 박사와 황색인종 및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문화적으로 동일시되었고 집단적인 인종히스테리의 근원이 되었다.

동지, 당신 수중에 놓여진 그 무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오? 살인을 하고 그 살인을 했다는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훈련된 평범한 조건의 미국인이 외다. 자기 행동에 대한 기억이 없이는 아무리해도 죄의식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요. 당연히 붙잡힐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되요. 죄의식과 공포라는 그 미국인들 특유의 증상에서 놓여난 까닭에 스스로를 투항할 수도 없소. 자, 이제 레이먼드 쇼는 겉보기에 멀쩡하고 생산적이며 건전하고 존경받는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요. 게다가 잘만 이용한다면 경찰로부터도 안전할 거요.

Do you realize, Comrade, the implications of the weapon that has been placed at your disposal? A normally-conditioned American, who has been trained to kill and then to have no memory of having killed. *Without memory of his deed, he cannot possibly feel guilt. Nobody, of course, has any reason to fear being caught. Having been relieved of those uniquely American symptoms, guilt and fear, he cannot possibly give himself away.* Ah, now Raymond Shaw will remain an outwardly-normal, productive, sober, and respected member of community. And I should say, if properly used, entirely police-proof (인용자의 강조).⁶⁾

강조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시아적 마법과 연관된 공산주의의 공포는 미국문화의 뿌리 깊은 문화적 증상 및 인종주의에 맞닿아 있다. 엔 로에 의해 미국에 고유한 증상으로 여겨지는 ‘죄의식과 공포’는 건장한 백인병사가 황색인종의 심리조작에 의해 간단히 자신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고도의 세뇌에 의

6) 소설원문의 발언보다 영화 속 대사가 훨씬 더 미국식 자유주의의 내재적 취약성을 민감하게 포착한다. 소설에 나오는 엔 로의 해당 발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심리적 장치의 정교함도 정교함이지만 나의 이 놀라운 기술이 보여주는 가장 경탄스럽고 광범위한 특징은 그런 조건을 위한 원료를 다시 채우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이 요소는 어떤 주체가거나 상관없이 그리고 내 목소리나 내 개인의 통제를 상정하는 어떤 현실과도 완전히 독립되어 작동한다.”(With all of that precision in psychological design, the most admirable, the most far-reaching characteristic of this extraordinary technology of mine is the manner in which it provides for the refueling of the conditioning, and this factor will operate whatever the subject may be and utterly independently of my voice or any assumed reality of my personal control. Condon 53-54).

해 백인을 향한 무기로 변한 주인공의 자기파멸로 끝나는 <만주 출신 후보자>의 결말은 나약해진 미국의 남성성에 대한 경고도 아니고 소위 미국식 '모성주의'의 폐해에 대한 고발로만 읽기 힘들다(Ohl 174; Jackson 34). 오히려 한국전쟁으로 표상되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에 대한 미국문화의 지독한 공포가 내재해 있으며, 이는 유색인종들이 매우 정상적인 백인의 정신을 조작해 백인 자신을 파괴하는 무기로 만들어 버릴지 모른다는 집단적 '인종음모론'이 냉전시대 미국문화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이데올로기임을 보여준다.⁷⁾

셋째, 한국전쟁의 포로와 관련된 황색재난 및 아시아적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미국 사회의 내적 위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인종차별주의 매커니즘의 자기모순을 보여주기도 한다. 전쟁포로들의 변절은 미국식 자유주의의 우월성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에 심각한 위협이기에 미국의 지배층에게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이지만, 다른 한편 대중을 냉전의 논리에 투철한 '애국주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거둬 드려낼 수밖에 없는 외상이기도 하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전쟁포로의 문제는 진상을 드러내기에는 참담한 상처인 동시에 억압하여 감추기에는 그 정치적 효과가 아쉬운 이미지요 상징인 것이다. 따라서 <만주출신 후보자>가 한국전쟁과 관련된 영화로서는 예상 밖의 문화적 반항을 불러일으킨 데에는 미국적 질병인 '죄의식과 공포'를 인종주의의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으면서도 그것을 치유할 근거로 다름 아닌 미국적 자유주의와 가족중심주의로의 복귀를 꾀고 있는 영화의 지극히 보수적 제스처 때문일 것이다.⁸⁾

7) 미국문화 및 역사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러한 냉전 이데올로기의 유색인종혐오가 미국 역사에서 반복되는 증상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중반 청교도사회의 '마녀사냥(witch hunt)'은 청교도 사회 내부의 반대세력들을 인디언에 대한 인종적 혐오와 연결시켜 억압하려는 대표적 사례이고, 더 최근의 예로는 물론 아시아적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사회의 공포가 노골화된 '맥카시즘'(McCarthyism)과 9.11 사태 이후 강화된 이슬람 및 유색인종을 겨냥한 안보 이데올로기와 '애국주의'를 들 수 있겠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 실은 백인들의 유색인종혐오를 적당히 부채질하여 사회적 위기를 관리하려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낯익은 전략이라는 사실이다.

8)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전쟁을 걸프전쟁으로 옮겨 놓은 2004년 리메이크 판 <만주출신 후보자>는 미국문화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

그러나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보면 이 영화는 미래를 선취하는 힘보다는 동 시대에 뿌리박고 있음으로 인해 더 충격적이다. <만주출신 후보자>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모순들' 사이를 오가며 '정신 나간 탁구' 경기를 벌인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모순들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영화 그 자체로도 그리고 세뇌라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리고 모성주의에 대한 공격 및 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매카시즘에 대해 거부함으로써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영화는 미국 문화사의 특정한 순간, 즉 한국전쟁 포로의 경험에 깊이 영향을 받은 순간을 하나의 전형으로 만들어버리는 '급진적인 보수주의'를 보여준다.

With great distance, however, the film seems more striking for its rootedness in its own time than for its ability to pre-empt the future. *The Manchurian Candidate* may play a game of 'crazy ping pong' with 'the contradictions of Cold War ideology,' but it does not resolve these contradictions. As such and in its treatment of the brainwashing theme, its attack on momism and its simultaneous rejection-come-justification of McCarthyism, the film exhibits a 'radical conservatism' which typified a particular moment in American cultural history—one profoundly influenced by the Korean POW experience (Carruthers 87).

이렇듯 냉전의 맥락에서 재해석된 한국전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으로서 전쟁포로의 특수한 경험과 어울려 미국사회의 심층에 내재된 온갖 이데올로기들을 불러내는 역할을 떠맡았다. 한국전쟁이 제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쟁과 달리 의미 없는 '잊혀진 전쟁'으로 남아있는 데에는 이러한 복잡한 미국문화의 이데올로기적 매카니즘이 분명 작동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전쟁은 30여년에 걸친 미국의 일련의 세계 전쟁을 아시아라는 인종적 타자와의 불쾌한 만남으로 일괄 규정하게 만든 중요한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세뇌의 공포를 인종차별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의 공모관계에서 찾고 있으며 미국이 벌이는 전쟁의 근본 원인이 타자에 대한 두려움에 앞선 자기파괴에 대한 공포에 있음을 극명하게 부각시킨다.

V. 미국문화와 한국전쟁의 현재성

냉전시대의 서막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전쟁은 미국문화에서 독립적인 역사적 사실로 취급되기보다 다른 전쟁과 연관되어 거론되거나 전쟁포로 및 세뇌와 관련된 인종적 공포를 상기시키는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로 기능해 왔다. <만주출신 후보자>를 포함해 한국전쟁을 다룬 100여 편의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전쟁이 특수성이 거세된 문화적 상징으로서만 기억되고 형상화된다는 사실이다(Kim 27; Lentz 1-4). 말하자면, 한국전쟁을 다룬 많은 수의 영화들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들의 문법은 대체로 전쟁을 기억하기보다 망각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전쟁 직후에는 2차 대전의 영웅적 서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토양으로,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및 낯선 타자에 의해 세뇌당한 자유로운 개인의 절망의 진원지로, 베트남전쟁 이후에는 패배의 기억을 지우고픈 문화적 욕망에 의해 이미지만 남은 잊혀진 전쟁으로 한국전쟁은 미국문화에 각인되어 왔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은 미국의 국가적 운명과 참전자 및 대중들의 전쟁체험 간의 불가피한 괴리를 망각하게 해주는 훌륭한 대중관리의 이데올로기로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다룬 소설들을 베트남전쟁 소설과 비교한 어떤 평자의 지적처럼, 한국전쟁의 경험은 베트남전쟁과 냉전체제에 얽힌 이데올로기의 진상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근거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특히 소설에 있어서 베트남 전쟁의 재현은, 그 전쟁을 여러 면에서 “독특한” 전쟁으로 그려내면서, 국가의 목표와 전사들이 겪은 경험들의 성격 간에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있었다는 시각을 강조하고 반영한다. 반면 한국전쟁을 다룬 소설에 대한 검토는, 충격적인 대조점들을 보여주고 베트남의 경험을 아시아에서의 실패한 모험이라는 좀더 큰 맥락에 자리매김함으로써 베트남 전쟁의 독특성이라는 신비를 벗겨내는 방향으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Vietnam War representation, particularly in fiction, underscores and reflects the view that there were discontinuities in national purpose and the

nature of the warriors' experiences, imaging it the "unique" war on many levels. However, an examination of Korean War fiction goes a long way towards demythologizing the uniqueness of Vietnam by offering striking parallels and by placing Vietnam experience in a larger context of Asian misadventure (Jason 109).

한국전쟁이 아시아와 대면한 일련의 전쟁에서 미국의 자기망각—‘아시아에서의 실패한 모험’—을 얼마나 드러내어 미국인의 집단적 기억상실을 깨울 수 있을지는 미국문화에서 한국전쟁이 얼마나 다시 역사화 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잊혀진 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은 내적·외적인 인종차별의 공포가 미국문화에 뿌리 깊이 내장된 대중통제 이데올로기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계속해서 잊혀진 전쟁으로 표상되겠지만, 결코 완전히 잊혀지지 않은 채 매번 더 흉측한 모습으로 문화적 위기의 시점에 거듭거듭 미국문화 표층을 뚫고 돌아올 것이다. 한 역사가의 지적처럼 “한국전쟁은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안보 현안으로 여전히 존속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전쟁을 설명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존재”할 것이다(Millett 935). 미국인들에게 한국전쟁은 지울 수 없는 유령인 동시에 회귀할 때마다 미국인의 자기망각을 질타하는 무의식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에 의해서만 재현되는 ‘억압된 전쟁’이다.

인 용 문 헌

김승태. 『6.25 전란기 유엔군측의 포로정책과 기독교계의 포로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21호 (2004): 37-67.

안정숙. 『『매쉬』연구: 구세주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 이기운, 신영덕, 임도한 엮음. 서울: 국학자료원, 2003. 195-214.
- 정연선. 「중단된 성전: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소설의 연구」 『한국전쟁과 세계문학』 이기운, 신영덕, 임도한 엮음. 서울: 국학자료원, 2003. 159-194.
- Blair, Clay. *The Forgotten War: America in Korea 1950-1953*. New York: Times Books, 1987.
- Carruthers, Susan L. "The Manchurian Candidate (1962) and the Cold War Brainwashing Scare." *Historical Journal of Film, Radio, and Television* 18. 1 (Mar. 1998): 75-94.
- Condon, Richard. *The Manchurian Candidate*. New York: Pocket Star, 1959.
- Dingman, Roger. "To Acknowledge a War: The Korean War in American Memory."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5. 2 (Apr. 2001): 561-562.
- Ells, Mark D. Van. "Korean War Vets Missing from Popular Culture." *Veterans of Foreign Wars Magazine* (August 2003): 1-3.
- Fleming, Dan B. and Burton I. Kaufman. "The Forgotten War: Korea." *The Education Digest* 56. 4 (Dec. 1990) 71-72.
- Foot, Rosemary. *A Substitute for Victory: The Politics of Peacemaking at the Korean Armistice Talk*. Ithaca: Cornell UP, 1990.
- Granfield, Landa. *I Remember Korea: Veterans Tell Their Stories of the Korean War, 1950-53*. New York: Clarion, 2003.
- Hertzberg, Hendrik. "War and Antiwar." *The New Yorker*. September 5, 2005: 49-50.
- Hickey, James. *Chrysanthemum in the Snow: The Novels of the Korean War*. New York: Crown, 1990.
- Jackson, Tony. "The Manchurian Candidate and the Gender of the Cold War." *Literature and Film Quarterly* 28. 1 (2000): 34-40.

- Jason, Philip K. "Vietnam War Themes in Korean War Fiction." *South Atlantic Review* 61. 1 (Winter 1996): 109-121.
- Kim, Minjung. *Reading Korean War Films through Different Lenses: Patterns of Constructing Historical Accounts through Film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Ann Arbor: U of Michigan. 2004.
- Lentz, Robert J. *Korean War Filmography*. Jefferson, NC: McFarland, 2003.
- Martinez, Al. "Korea: The Remembered War." *AARP Magazine* July-August <http://www.aarpmagazine.org/people/Articles/a2003-05-21-mag-korea.html> > November 25, 2007.
- May, Lary. "Reluctant Crusaders: Korean War Films and the Lost Audience." *Remembering the "Forgotten War": The Korean War through Literature and Art*. Armonk, N.Y.: M.E. Sharpe, 2000. 110-136.
- McCann, David R. "Our Forgotten War." *America's War in Asia*. Ed. Philip West et al. Armonk, New York: East Gate, 1998. 65-83.
- Millet, Allan R. "Introduction to the Korean War."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65. 4 (Oct. 2001): 921-935.
- Oh, Bonnie B. C. "The Korean War, No Longer Forgotte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7. 1 (Feb. 1998): 156-160.
- Ohi, Kevin. "Of Red Queens and Garden Clubs: The *Manchurian Candidate*, Cold War Paranoia, and the Historicity of the Homosexual." *Camera Obscura* 20. 1 (2005): 149-183.
- Schaller, Michael. "Stuck on the 38th Parallel?: Rethinking the Korean War." *Diplomatic History* 28. 2 (Apr. 2004): 295-296.
- Seed, David. "The Yellow Peril in the Cold War: Fu Manchu and *The Manchurian Candidate*." *Cold War Literature: Writing the*

- Global Conflict*. Ed. Andrew Hammond. New York: Routledge, 2006. 15-30.
- The Manchurian Candidate*. Paramount Pictures, 2004.
- The Manchurian Candidate*. United Artists, 1962.
- Varhola, Michael. J. *Fire and Ice: The Korean War, 1950-1953*. Mason City, IA: Savas Publishing, 2000.
- Wester, Michelle Black. *America and the Divided Country: Korean American Women Writers and the Korean War*.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Ann Arbor: U of Michigan. 2005.
- Worland, Rick. "The Korean War Films as Family Melodrama: 'The Bridges at Toko-Ri' (1954)" *Historical Journal of Film, Radio, and Television* 19. 3 (Aug. 1999): 359-377.
- Young, Charles S. "Missing Action: POW Films, Brainwashing and the Korean War, 1954-1968." *Historical Journal of Film, Radio, and Television* 18. 1 (Mar. 1998): 49-74.

【Abstract】

Repressed Racial Fear: American Culture and the Ideologization of Korean War

Woosung Kang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clarify and explicate the implications of the ideologization of Korean War in American culture, devlving into the deep-seated guilt and fear of American POW experiences in the so called “forgotten war.” Caught between the national heroes of World War II and the wounded but self-determined veterans of Vietnam War, POWs of Korean War have been treated as nuisance, or even a national trauma; their experience was neither properly acknowledged nor entirely repressed. Korean War has been down-sized when it was culturally necessary to forget how they failed in Asian misadventures, but forcefully represented as a significant event to start off the long and complicated drama of Cold War and the happy outcome thereof. Especially, Korean War films like *Manchurian Candidate* subtly demonstrates how Korean War has been accepted and at the same time repressed in American culture as a contradictory but threatening affair which is chiefly concerned with racial as well as red fear towards the Asian communist Other. The film brilliantly shows that Korean war is not entirely forgotten but remains to this day a distorted image, or a powerful ideology in service of racial containment in American cultural politics. Still, the film unexpectedly illustrates how Korean War would work as an ideologized image in American culture, a far more fancy ghost than the Vietnamese counterpart for the obliteration of national trauma at the time of cultural crisis.

주제어 (Key Words)

한국전쟁(Korean War), 전쟁포로(POW), 『만주출신 후보자』(Manchurian Candidate), 세뇌(brainwashing), 냉전(Cold War), 인종차별 이데올로기(racial ideology), 외상(外傷, trauma)